

<2016년 국가직 9급 국어 총평>(④책형)
(天衣無縫 정원상 국어)

1. 출제 결과 (평가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유형	2015년 문항수	2016년 문항수	비율
1	비문학	6	5	25%
2	문학	3	5	25%
3	어문 규정	2	3	15%
4	문법	2	2	10%
5	어휘	2	2	10%
6	어법	2	0	0%
7	한자성어	2	1	5%
8	쓰기	1	1	5%
9	한자	0	1	5%

2. 최근 치렀던 국가직 9급 국어 문제 중 가장 어려웠습니다.

- 최근 국가직 9급 국어 문제가 대체로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대체로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문학 문제가 5문제나 출제되었고, 한자의 표기, 한자어의 의미 관계, 고유어, 어문 규정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문학 역시 전체적으로 낯선 지문에 생소한 문제 방식이 많아서 학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봅니다.
-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이어서 비문학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문학, 어문 규정, 문법, 어휘 등에서 2문항 이상 출제되었습니다.
- 국가직 시험이 본디 기본을 중시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중간 난이도 문제가 많았고, 일부 매우 평이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만 고난도 문제들이 5문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당락의 관건이 됩니다.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최소 80점 이상은 나와야 하고, 90점 이상이면 최상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문학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비문학 문제를 어려워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 비문학 문제가 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비문학 독해 관련 문제가 작년에 이어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비문학 지문이 늘고 독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올해는 순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제목, 주제, 일치, 추론, 대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사실적 이해 문제가 많았고, 추론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문에 대한 독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문학 독해는 시간 조절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꾸준히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제, 일치, 제목, 추론, 순서, 논지 전개 방식, 토론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4. 문학 문제가 다섯 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 현대시 2문제, 현대 소설 2문제, 고전수필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학사적으로 유명한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최근의 시도 읽고 감상할 수 있어야 하며, 소설의 시점이나 서술의 특징, 문학 작품의 함축적인 내용도 파악해야 한다. 문학의 범위가 넓고 작품이 방대하지만 다양한 작품과 함께 감상을 위한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시된 문학 작품이 대체로 EBS에 수록된 작품이므로 6차, 7차 교육과정의 작품들을 두루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5.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 3번(어문 규정), 6번(문장의 짜임), 7번(한자의 표기), 16번(비문학 제목), 19번(한자어의 관계) 문제 등에서 학생들이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직에서 한자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서 방심했던 학생들은 한자 공부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을 것이며, 다양한 어문 규정과 문법 문제 등도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고유어나 천상병의 <귀천> 등도 어려워했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선지들과 관계를 파악해 보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으므로 선택지에 대한 감(感)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올해 나오지 않은 영역이 있어서 내년에 출제될 유형이 있습니다.

- 2015년 문제와 중복되는 유형인 비문학, 한자성어, 띄어쓰기, 단어 간의 관계, 조사의 사용, 쓰기 문제, 고전수필 장르인 '설(說)' 등도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 나오지 않아서 2016년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외래어 표기법, 문장의 짜임, 복수 표준어, 한자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 반면, 음운의 변동, 형태소와 단어, 언어 예절, 품사, 로마자 표기법, 고대시가, 문장 부호, 어법, 고전문법(훈민정음 등), 속담 등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는 전 영역을 다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은 듯하나 정철의 <관동별곡>이나 <기미 독립선언서>에 있는 한자 어휘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사소한 어휘라도 간과하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7. “기회는 계절처럼 다시 온다!”

- 우선, 전체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으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음 시험에는 기회가 또 올 겁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들에게는 큰 칭찬을, 시험을 잘 못 본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 그리고 어떤 결과이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결과를 통해 다음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슬피하고 속상해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현 실력을 직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합니다. 시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아직 모자란 것’입니다. 낙담하거나 실망해 하지 말고, 앞으로 발전할 자신을 믿고, 더 전진합시다.
-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인내했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모두 격려해 드리며 ‘실력 있는 젊

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당하게 완주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 보다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
-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 ④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1. [정답] ④ [띄어쓰기. 난이도 中]

[풀이] '그것하고'의 '하고'는 구어체로 쓰이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오답]

- ①: '스승이라기보다는'의 '보다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②: '황소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③: '밥은커녕'의 '커녕'은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2.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② 이제는 안갯을할 때가 되었다.
- 안갯을: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
- ③ 그 올타리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영 불쌍이 아니었다.
- 불쌍: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 ④ 상고대가 있는 풍경을 만났다.
-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2. [정답] ② [어휘. 난이도 中]

[풀이]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은 '안갯을'이다. 참고로, '안갯을'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뜻한다.

3. 밑줄 친 어휘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그는 얼금얼금한 얼굴에 콧망울을 벌름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 ② 그 사람 눈초리가 아래로 축 처진 것이 순하게 생겼어.
- ③ 무슨 일인지 콧밥이 혹 달아오르면서 목덜미가 저린다.
- ④ 등산을 하고 났더니 장판지가 땅긴다.

3. [정답] ① [어문 규정. 난이도 上]

[풀이] '콧망울'이 아니라 '콧방울'이 표준어이다. '콧방울'은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을 뜻한다.

[오답]

- ②: 이때의 '눈초리'는 '눈꼬리'와 같은 말로,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를 뜻한다.
- ③: 이때의 '콧밥'은 '콧볼'과 같은 말로, '콧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을 뜻한다. 참고로, '귀지'의 비표준어인 '콧밥'과는 다르다.

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만일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 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걸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갈아도 닳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이를 어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 중에서 -

- ① 잘생긴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말에서 거사의 현실인식을 알 수 있다.
- ②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 거울을 닦겠다는 말에서 거사가 지닌 처세관을 엿볼 수 있다.
- ④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가 드러나 있다.

4. [정답] ④ [문학. 난이도 中]

[풀이]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이거나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 이규보의 <경설>의 주제는 '허물을 수용하는 처세의 필요성'이다.

[오답]

- ②: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지혜, 안목)'과 관련할 때 '잘생긴 사람'은 '도덕적인 소수의 사람'을 비유하고, '못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다수의 사람'을 비유한다.

5. ㉠ ~ ㉣을 고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똑같이 많이 벌고 잘살기를 바랄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따라서 우리와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연 치유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동안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 떡 먹은 입 쓸어 치듯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빈부 격차 개선책을 제시하여 빈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옥하거나 ㉢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와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 또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세제 개혁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제만큼 유효한 재분배 정책 수단도 없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부문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 - 문맥에 맞도록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② ㉡ - 의미가 통하도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으로 수정한다.
- ③ ㉢ - 어법에 맞도록 '경원을 사서'으로 수정한다.
- ④ ㉣ -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한다.

5. [정답] ③ [쓰기. 난이도 中]

[풀이] '경원되어서는'을 '경원시해서는'으로 고쳐야 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경원되다'나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경원을 사다'도 어법에 맞지 않다. '경원시(敬遠視)하다'는 '겉으로는 가까운 체하면서 실제로는 멀리하고 꺼림칙하게 여기다.'는 뜻이다.

[오답]

② 떡 먹은 입 쓸어 치듯: 떡을 먹고도 안 먹은 듯 입을 쓸어 내며 시치미를 뚝 떤다는 말.

6. 안긴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
-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 ③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
- ④ 대화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랐다.

6. [정답] ③ [문법. 난이도 中]

[풀이]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이다. ③번 '아이들이 놀다 간'은 관형절이 관형어로 쓰인 경우이므로 주성분이 아니라 부속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 ①: 서술절 '교정이 넓다'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
- ②: 명사절 '비가 오기'가 목적어로 쓰인 문장.
- ④: 명사절 '대화가 어디로 튈지(를)'이 목적어로 쓰인 문장. 이때 '-르지'는 특이하지만 '-르', '-기'와 같은 명사절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르지'는 학교문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지만 국어 임용고사에서는 '명사절'로 다루고 있는 경우이다.

7. ㉠ ~ ㉣의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 그는 적의 ㉠ 사주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염탐했다.
- 남의 일에 지나친 ㉡ 간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 선박은 ㉢ 결함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하였다.
- 비리 ㉣ 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 ① ㉠ - 使喚
- ② ㉡ - 間涉
- ③ ㉢ - 缺陷
- ④ ㉣ - 剔抉

7. [정답] ② [한자. 난이도 上]

[풀이] '간섭'은 '干涉(간여할 간, 간섭할 섭)'으로 표기해야 한다.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을 뜻한다.

[오답]

- ① 사주(使喚):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부릴 사, 부추길 주).
- ③ 결함(缺陷):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모자랄 결, 빠질 함).
- ④ 척결(剔抉):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냄. 나쁜 부분이나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 버림(베어낼 척, 도려낼 결).

8. 다음 글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개의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있다. 미친 듯이 제 몸을 긁어 대는 개를 붙잡아서 털 속을 헤쳐 보라. 진드기는 머리를 개의 연한 살에 박고 피를 빨아 먹고 산다.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배인지 꼬리인지도 분명치 않다. 수컷의 몸길이는 2.5밀리미터, 암컷은 7.5밀리미터쯤으로 편셋으로 살살 집어내지 않으면 몸이 끊어져 버린다.

한번 박은 진드기의 머리는 돌아 나올 줄 모른다. 죽어도 안으로 파고들다가 죽는다. 나는 그 광경을 '몰두(沒頭)'라고 부르려 한다.
- 성석제, 「몰두」 중에서 -

- ① 소리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섞어 사용해서

- ②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대신 아주 엉뚱한 사건을 전개해서
- ③ 묘사하는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생태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 ④ 어떤 단어를 보통 쓰이는 의미 대신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짐짓 받아들여서

8. [정답] ④ [문학. 난이도 中]

[풀이] ‘몰두(沒頭)(빠질 몰, 머리 두)’의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진드기가 개의 몸에 머리를 박고 안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몰두’라는 한자어를 활용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몰두>는 성석제의 단편소설이다.

9.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필요, 어텔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체다. 생번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꿈쩍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텔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딱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중략)…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험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 ①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9. [정답] ② [문학. 난이도 中]

[풀이] 염상섭의 <만세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가 ‘그자들’을 관찰하고 느낀 것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③: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④: 1

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혼용.

[참고] 염상섭, <만세전>(1922)

- * 갈래: 장편소설, 여로(旅路)형 소설, 사실주의
- * 배경: 시간 - 3·1운동 전인 1918년 겨울 . 공간 - 동경과 서울
- * 경향: 사실주의
-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 문체: 사실적이고 호흡이 긴 문체
- * 어조: 자조, 혐오적 어조
- * 의의: 일제 식민지 하의 민족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제시
- * 주제: 식민지적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인식

10.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대화에서 ㉠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라이스(Grice)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네 가지의 ‘협력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이다. 둘째,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이다. 셋째,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이다. 넷째,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이다. 그러나 모종의 효과를 위해 이 네 가지의 격률을 위배하는 일은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언중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예외에 어긋난 경우도 많다.

— <보 기> —

대화(1) ㉠: 체중이 얼마나 되니?
 ㉡: 55kg인데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대화(2) ㉠: 얼마 전 시민 운동회가 있었다며?
 ㉡: 응. 백 미터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대화(3) ㉠: 너 몇 살이니?
 ㉡: 형이 열일곱 살이고, 저는 열다섯 살이지요.
 대화(4) ㉠: 점심은 뭐 먹을래?
 ㉡: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 ① 대화(1):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② 대화(2):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③ 대화(3):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④ 대화(4):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10. [정답] ①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대화(1)은 체중에 대한 대답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지킨 경우이다. 다만, ‘키’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하므로 ‘양의 격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오답]

- ②: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이므로 '질의 격률'을 위배한 대화이다.
- ③: '형이 열일곱 살이다'라는 정보는 필요 이상의 정보이므로 '양의 격률'을 위배한 대화이다.
- ④: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는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태도의 격률'을 위배한 대화이다.

11.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flash - 플래시
- ② shrimp - 쉬림프
- ③ presentation - 프레젠테이션
- ④ Newton - 뉴턴

11. [정답] ② [어문 규정. 난이도 下]

[풀이] '쉬림프'는 틀리고 '슈림프'가 맞다.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슈'는 맞고, '쉬'는 틀리다. 예를 들어, '타슈켄트, 아인슈타인'은 맞고, '타쉬켄트, 아인쉬타인'은 틀린 경우와 같다.

12.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 ② 웃지만 말고 다른 말을 좀 해 보아라.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 ③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 두어야 한다.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 ④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냄

12. [정답] ① [문법. 난이도 中]

[풀이] 이때의 '는'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참고로, '대조'의 뜻을 나타낼 때는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의 경우에 해당한다.

13.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교씨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다. 사악한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한림마저 모함한다. 그러나 결국은 교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13. [정답] ④ [한자성어. 난이도 中]

[풀이]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사악한 교씨가 벌을 받고 사씨가 누명을 받게 된 상황은 '사필귀정(事必歸正)'에 해당한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뜻한다.

[오답]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1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연구원이 어떤 실험을 계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들썩 조를 지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다른 작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한 보수는 각 조당 5만 원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연구원은 참가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각각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면서, 그들이 다른 작업장에서 파트너가 받은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 후 연구원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설문을 했다. '보수를 받고 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나누어 받은 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연구원은 설문을 하기 전에 3만 원을 받은 참가자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해 했다.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덜 행복해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② 인간은 남보다 능력을 더 인정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③ 인간은 타인과 협력할 때 더 행복해 한다.
- ④ 인간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했을 때 더 행복해 한다.

14. [정답] ① [비문학. 난이도 下]

[풀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보상을 받아도 부담을 느끼고, 덜 보상을 받을 때도 덜 행복해 했다. '공평성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글이다.

15. 다음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마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장대한 로마 유적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관광지의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의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문명관(文明觀)이란 과거 문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① 여행할 때는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
- ②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 ③ 문화 유적에 대한 로마인의 자부심은 본받을 만하다.
- ④ 과거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15. [정답] ② [비문학. 난이도 下]

[풀이] 궁극적인 주장은 글의 내용을 통해 새롭게 일반화해야 한다. 글의 필자는 로마 유적을 통해 문명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과거 문명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문명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6.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 시인의 존재는 문화의 비싼 장식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스스로 군대를 가지지 못한 채 제정 러시아의 가혹한 탄압 아래 있던 폴란드 사람들은 시인의 존재를 민족의 재생을 예언하고 굴욕스러운 현실을 탈피하도록 격려하는 예언자로 여겼다. 또한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이산되어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성 단테를 유일한 ‘이탈리아’로 숭앙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잔혹한 압제 하에 있었던 벨기에 사람들은 베르하렌을 조국을 상징하는 시인으로 추앙하였다.

- ① 시인의 생명(生命) ② 시인의 운명(運命)
- ③ 시인의 사명(使命) ④ 시인의 혁명(革命)

16. [정답] ③ [비문학. 난이도 上]

[풀이] 제시문은 ‘시인의 사명(使命), 임무(任務), 책임(責任), 소임(所任)’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시인은 시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예언가와 선구자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시 이전의 일반적 진술을 찾으면 제목이 된다.

[참고] 사명(使命): 맡겨진 임무.

운명(運命):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17. ㉠ ~ ㉣을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
 빈방에 혼자 앉드려 훌쩍거리던

이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윷묵.

- 기형도, 「엄마 걱정」 -

- ① ㉠: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간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다.
- ② ㉡: 관심 받지 못해 외로운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③ ㉢: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④ ㉣: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 나타나 있다.

17. [정답] ③ [문학. 난이도 下]

[풀이] ㉢은 ‘엄마를 기다리는 화자의 외로운 마음’이 나타나 있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과는 관련이 없다. 기형도의 <엄마 걱정>은 박재삼의 <추억에서>를 떠올리는 시이다.

[참고] 기형도, <엄마 걱정>(1985)
 제재: 가난했던 어린 시절.
 주제: 장애 간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
 어조: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는 애절한 어조.
 성격: 회상적, 감각적.
 심상: 시각, 촉각, 청각적 심상.

18.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歸天)」 -

- ①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 ②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 같다.
- ③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
- ④ 엷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18. [정답] ③ [문학. 난이도 中]

[풀이] 제시된 시의 ‘이슬’은 앞 구절인 ‘스러지’와 연관되어 있으며, ‘소멸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이슬’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그 어떤 미련과 집착도 가지지 않는 자유로운 달관의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③번 역시 ‘고된 인생도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라고 했으므로 ‘꿈’은 달관의 삶의 자세를 상징한다.

[오답] ① 눈물: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 ② 나뭇잎: 순수함. ④ 구름: 자유로움.

[참고] 천상병, <귀천>(1970)

주제: 죽음에 대한 관조적 수용. 생의 긍정과 죽음에 대한 달관.

19. 두 한자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광정(匡正) - 확정(廓正)
- ② 부상(扶桑) - 함지(咸池)
- ③ 중상(中傷) - 비방(誹謗)
- ④ 갈등(葛藤) - 알력(軋轢)

19. [정답] ② [어휘. 난이도 上]

[풀이] ‘부상(扶桑)’과 ‘함지(咸池)’는 반의 관계이다. ‘부상(扶桑)’(떠받칠 부, 뽕나무 상)은 ‘해가 뜨는 동쪽 바다’를 뜻하며,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나온다. ‘함지(咸池)’(다 함, 못 지)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을 뜻한다.

[오답] 나머지는 모두 유의 관계이다. 특히 ①번은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단어이다.

- ① 광정(匡正): 잘못된 것이나 부정(不正) 따위를 바로잡아 고침.
확정(廓正): 잘못을 바로잡음.
- ③ 중상(中傷):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
비방(誹謗):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 ④ 갈등(葛藤): 칩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알력(軋轢):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

20.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그건 밑 부분이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③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20. [정답] ② [비문학. 난이도 下]

[풀이] 김 교수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지는 않았다.